Cantata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BWV 147

- □□

정보

Johann Sebastian Bach: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BWV 147
작곡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작품명: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BWV 147
장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 혼성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교회 칸타타
작곡 시기: 1716년 Weimar 원형, 1723년 Leipzig 개작
초연: 1723년 7월 2일, Leipzig, 성모 방문 축일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Herz_und_Mund_und_Tat_und_Leben,_BWV_147

Johann Sebastian Bach의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은 1716년 Weimar에서 시작한 칸타타를 Leipzig의 성모 방문 축일에 맞게 확장한 작품이다. 현재 연주되는 BWV 147은 합창, 레치타티보 , 아리아, 코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열 개 악장을 이루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과 혼성 합창, 트럼펫 · 오보에류 ·현악 ·통주저음이 참여한다. 두 부분의 끝에는 같은 음악에 서로 다른 코랄 텍스트를 붙인 악장이 놓이고, 그 가운데 하나인 Jesus bleibet meine Freude 가 영어권에서 Jesu, Joy of Man’s Desiring 으로 널리 알려졌다.

개요
작품의 제목은 ‘마음과 입과 행위와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는 첫 합창의 문장에서 온다. Bach는 이 문장을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을 찬양한 Magnificat, 마리아를 만난 엘리자베트의 태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었다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연결했다. 따라서 칸타타의 중심은 마리아의 전기를 재현하는 데 있지 않고, 신앙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요청을 공동체의 예배 언어로 펼치는 데 있다.

Weimar에서 Bach는 Salomo Franck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대림절 칸타타를 구상했다. Leipzig로 옮긴 뒤에는 성모 방문 축일의 성서 본문에 맞춰 레치타티보를 새로 넣고 악장 순서와 가사를 조정했으며 , 두 부분을 닫는 코랄을 마련했다. Netherlands Bach Society는 이렇게 간결한 원형이 Leipzig에서 큰 두 부분 칸타타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열 악장은 이 개작의 결과다.

출판 정보와 자료

현행 연주 자료는 BWV 147의 Leipzig 버전과 초기 Weimar 원형 BWV 147a를 구분한다. Bachipedia와 Bach-Cantatas는 1716년 원형에 있던 네 아리아와 다른 종결 구상을 1723년 버전의 레치타티보 ·코랄과

분리해 제시한다. 공개 악보와 판본 정보는 IMSL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평적 텍스트와 악장별 설명은

Bachipedia가 보완한다.

코랄 텍스트는 Martin Jahn의 시에서 왔고, 나머지 중심 텍스트는 Salomo Franck가 썼다. 1723년 개작에 들어간 연결 레치타티보와 일부 보간 텍스트의 작가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영어권의 Jesu, Joy of Man’s Desiring 은 원래 독일어 제목이 아니라 후대 번역과 편곡에서 굳어진 명칭이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30–35분이다. 반복 기호와 코랄의 템포에 따라 각 악장의 길이는 달라지므로 , 작품의 규모는 고정된 분 단위보다 열 악장과 두 부분이라는 구조로 파악하는 편이 정확하다.

편성

독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 혼성 4성부 (SATB)
목관: 오보에 2, 오보에 다모레, 오보에 다 카치아 2, 바순
금관: 트럼펫 1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비올론
통주저음 :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basso continuo

기관별 편성표에는 오보에류의 표기가 조금씩 다르게 정리되지만 , 아리아마다 특정 악기가 독주 성부와 짝을 이룬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 알토 아리아는 오보에 다모레, 소프라노 아리아는 독주 바이올린, 테너 아리아는 첼로를 동반하고, 베이스 아리아에서는 트럼펫이 성악선과 맞선다. 트럼펫은 두 코랄에서도 합창의 소프라노 선율을 밝게 겹친다.

악장별 구성

제 1악장. 합창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부르는 합창이 마음, 입, 행위,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트럼펫과 관현악의 밝은 리토르넬로가 합창의 모방적 진행과 결합하며, 공적인 신앙 고백과 개인의 내적 결심을 한 장면에 놓는다.

제 2악장. 테너 레치타티보 Gebenedeiter Mund!

테너는 마리아가 자신의 내면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에서 출발해, 인간도 구원의 은총을
침묵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 합창의 선언이 예배 공동체의 언어였다면 , 이 레치타티보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좁혀 준다.

제 3악장. 알토 아리아 Schäme dich, o Seele, nicht

알토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권한다. 오보에 다모레와 통주저음이 성악선과 나란히 움직이며, 격렬한 합창 뒤에 더 가깝고 낮은 음량의 설득을 만든다.

제 4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 Verstockung kann Gewaltige

verblenden

베이스는 권력자의 완고함이 그를 눈멀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팔은 낮은 자를 일으킨다고 대조한다. 이어지는 준비의 권고는 다음 소프라노 아리아가 개인의 마음을 향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 Bereite dir, Jesu, noch itzo die

Bahn

소프라노는 예수를 맞을 길을 마음 안에 마련해 달라고 기도한다. 독주 바이올린은 성악선 사이에서 유연한 선율을 이어 가며 ‘길을 준비한다 ’는 가사를 관현악의 움직임으로 확장한다.

제 6악장. 코랄 Wohl mir, dass ich Jesum habe

첫 부분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코랄로 끝난다. 합창의 선율은 일정한 박동을 가진 관현악 반주 위에 놓이며, 트럼펫과 현악이 공동체의 확신을 또렷하게 만든다. 후대에 이 음악이 Jesu, Joy of Man’s Desiring 으로 번역 ·편곡되면서 칸타타 밖에서도 독립적인 명성을 얻었다.

제 7악장. 테너 아리아 Hilf, Jesu, hilf

두 번째 부분은 기쁨과 고통, 좋은 때와 나쁜 때 모두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해 달라는 테너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첼로와 비올론을 포함한 통주저음의 움직임이 테너의 반복되는 간청을 받치며, 신앙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만든다.

제 8악장. 알토 레치타티보 Der höchsten Allmacht Wunderhand

알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느님의 손을 말하며, 마리아가 엘리자베트를 찾아갔을 때 태중의 요한이 기뻐 뛰었다는 장면을 들려준다. 두 오보에 다 카치아가 동반하는 이 레치타티보는 성모 방문의 성서적 배경을 칸타타의 신앙 고백과 연결한다.

제 9악장. 베이스 아리아 Ich will von Jesu Wundern singen

베이스는 예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입술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결심한다. 트럼펫과 현악이 성악선에 더해지면서 마지막 코랄을 앞둔 공개적인 찬양의 성격이 강해진다. Apple Music Classical은 이 아리아를 트럼펫이 독주 성부와 맞서는 예로 소개한다.

제 10악장. 코랄 Jesus bleibet meine Freude

마지막 코랄은 예수가 마음의 위로이자 삶의 힘이라는 고백으로 전곡을 닫는다. 제 6악장과 같은 음악이 다른 코랄 텍스트와 결합해 다시 등장하므로 , 두 부분은 서로 닮은 결말을 가진다. 반복되는 관현악 선율과 합창 코랄의 결합이 작품의 공적 선언을 개인의 평온한 확신으로 가라앉힌다 .

두 판본의 관계

BWV 147a는 1716년 Weimar 궁정 예배를 위해 시작된 원형이다. 현재 버전의 제 2·4·8악장에 해당하는 레치타티보와 두 코랄은 원형의 간결한 흐름에 없었고, 1723년 Leipzig 개작에서 새로 연결되거나 교체되었다 . 또한 아리아의 순서와 텍스트 일부가 바뀌었다. 따라서 BWV 147을 1716년에 완성된 일곱 악장 작품으로 소개하면 초기 원형과 Leipzig판을 섞게 된다.

개작은 옛 음악을 버리고 새로 작곡한 과정이 아니다. Bach는 이미 가진 아리아와 합창 재료를 새 축일의
성서적 의미에 맞춰 다시 배치하고, 레치타티보와 코랄을 덧붙였다. Gardiner는 자신의 녹음 해설에서 이 과정을 여섯 악장 원형이 열 악장 칸타타로 확장된 사례로 설명한다. 두 판본의 차이는 작품의 부수적인 변형이 아니라, 같은 음악이 다른 예배력과 서사 안에서 새 기능을 얻는 방식이다.

코랄과 오블리가토의 역할

이 칸타타에서 코랄은 단순한 종결 표지가 아니다. 제 6악장은 첫 부분의 결론으로 신앙을 붙드는 마음을 말하고, 제 10악장은 두 번째 부분의 끝에서 그 마음이 삶 전체의 기쁨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같은 음악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코랄은 서로를 기억하게 하며, 합창과 관현악이 만든 큰 호흡을 묶는다.

네 아리아는 서로 다른 오블리가토 악기를 통해 같은 주제를 다른 음색으로 바꾼다. 오보에 다모레는 알토의 내면적 권면을 감싸고, 독주 바이올린은 소프라노가 준비하는 길을 유연한 선율로 그린다. 테너 아리아의 첼로는 간청을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받치며, 베이스 아리아의 트럼펫은 ‘입술의 제물 ’이라는 가사를 공적인 울림으로 확장한다. 이 배치는 악장마다 다른 인물을 세우면서도 , 첫 합창의 ‘증언 ’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는다.

수용과 주요 레코딩

John Eliot Gardiner / English Baroque Soloists, Monteverdi Choir (SDG162, 2000
년 녹음): Gardiner의 해설은 BWV 147a의 네 아리아와 간결한 종결에서 Leipzig판의 레치타티보 ·
두 코랄로 확장되는 과정을 악장별로 설명한다. 네 아리아의 오블리가토와 첫 합창의 관현악
리토르넬로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녹음이다.
Marcus Creed / Netherlands Bach Society (2018년 Naarden 녹화, 2020년 공개):
Griet De Geyter, Alex Potter, Guy Cutting, Matthias Winckhler가 네 독창 성부를 맡았다. 현대 시대악기 공연의 편성과 10악장 전체의 흐름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Netherlands Bach Society는 유명한 두 코랄을 칸타타의 나머지 악장과 함께 들을 필요를 강조한다. Hans-Christoph Rademann / Gaechinger Cantorey (Carus 83.522, 2022): Nuria Rial, Wiebke Lehmkuhl, Benedikt Kristjánsson, Matthias Winckhler가 참여했다. 평론가 David

Vickers는 개작 과정에서 추가된 레치타티보와 코랄, Schäme dich 의 오보에 다모레, Bereite dir
의 독주 바이올린, 마지막 아리아의 트럼펫을 세밀하게 다룬다.

주요 자료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47: 1716년 Weimar 원형과 1723년 Leipzig 개작, 10악장
목록, 텍스트와 현대 공연 크레딧.
Bachipedia, BWV 147: 악장별 텍스트 작성자, 편성, 성모 방문 축일과 음악 분석.
Bach Choir of Bethlehem, Cantata BWV 147: 2부 10악장 구조와 성서적 배경, 트럼펫 ·코랄 설명

.

Bach-Cantatas.com, BWV 147: BWV 147과 147a의 구분, 악장별 성부 ·편성 ·음반 목록. IMSLP,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BWV 147: 공개 악보와 작품 식별 정보.
Apple Music Classical, BWV 147: Weimar 원형의 재사용, 트럼펫과 오블리가토 악기의 역할, 코랄의 후대 명칭.
Hyperion, Gardiner SDG162: Gardiner의 녹음과 BWV 147a·147 개작에 관한 해설. Gramophone, Rademann 음반 평: Rademann 녹음의 연주자, 오블리가토와 코랄에 대한 평론.